

전북 제조 · 비제조업 기업심리 동반 하락

경기 회복 기대감 약화... 내수 부진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부담 가중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심리지수(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조달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 복합적인 악재가 기업 경영환경을 압박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된 '2026년 6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영 상황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제조업 CBSI는 98.9로 전월 대비 8.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다음 달 경기를 예측하는 7월 전망 CBSI는 94.1로 전월보다 9.5포인트나 하락해 향후 경기 전망 역시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부분의 세부 지표도 전반적인 악화를 나타냈다. 업황 BSI는 69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고, 생산 BSI는 89로 4포인트 떨어졌다. 매출 BSI는 84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규수주

BSI 역시 81로 7포인트 낮아져 앞으로 생산과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다. 응답 기업의 30.4%가 원자재 가격 부담을 최대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물류비 상승 등이 여전히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제조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82.5로 전월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의 심리지수를 기록하며 체감경기 위축이 두드러졌다. 다만 7월 전망 CBSI는 85.4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경영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했다. 업황 BSI는 57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매출 BSI는 61로 3포인트 떨어졌다. 체산성 BSI는 60으로 8포인트 하락하면서 비제조업체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수 부진이었다. 전체 응답의 26.7%가 소비 감소와 시장 위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15.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 확보 경쟁 심화가 서비스업과 유통업 등 비제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상근 기자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지난 24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회원과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토목기술 발전 · 교류 확대 소통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제42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회 열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지난 24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회원과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학술발표와 정기총회, 친목 만찬 등으로 진행됐으며, 토목 기술 발전과 회원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전북대학교 김남훈 교수가 'DEM 표면기반 지형특성모형을 활용한 RFC 생성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군산대학교 한정우 교수는 'MODWT 기반 다중 스케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복합기름 · 염색 조 기경보 기법'을 소개하며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회 발전과 지역 건설기술 향상에 기여한 회원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에서는 제22대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임 지회장에는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취임해 앞으로 2년간 전북지회를 이끌게 됐다.

/오상근 기자

새 단장한 하나로마트 전주점, 전북 대표 먹거리 플랫폼 도약

고객22% 증가 · 농축수산물 매출 105% 상승 · 지역 상생 유통 모델 주목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전주점이 새 단장을 마친 이후 고객 증가와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생 유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유통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산지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직영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전문 유통기업이다. 지난 5월 리뉴얼을 마친 하나로마트 전주점은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전북 대표 농식품 전문 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전주점은 리뉴얼을 통해

상품 구성과 고객 동선을 전면 개선하고 양곡, 과일, 채소, 축산, 수산, 특산품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재편했다.

이 같은 변화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새 단장 이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고객 수는 22%, 전체 매출은 8.3% 증가했다. 특히 양곡 · 과일 · 채소 · 축산 · 수산 · 특산품 등 1차 상품 매출은 105% 늘어나 전체 매출 증가율을 웃돌며 우리 농축수산물 중심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점은 지역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로컬푸드 코너 운영에도 힘을 쏟



하나로마트 전주점 다이소 매장

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전주점은 먹거리뿐

아니라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강화했다. 매장에는 약 800평 규모의 전북 최대 다이소 매장이 입점했으며, 베이커리와 반찬 전문점, 단킨도너츠 등 다양한 테넌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BIO USA' 연계 'Korea Night' 성료

전북테크노파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행사인 BIO USA 2026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며 전북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과 연계해 개최된 네트워킹 리셉션으로, 전 세계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기업과 투자자, 연구기관, 정부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Korea Night @ BIO 2026'은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

하고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계자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행사 기간 동안 전북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글로벌 제약 · 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역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동연구, 투자유치, 기술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일자리사업 유관기관 통합 워크숍 열려

전북지역 일자리사업 유관기관들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고용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인자위)는 25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2026년 전북 일자리사업 유관기관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인자위가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올해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발표된 주요 사업은 △농생명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BIONE 고용혁신 프로젝트 △바탕이음 프로젝트 △관광 · 바이오산업 기초이음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을 주제로 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핵심 일정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실무자들은 팀별 토론을 통해 지역 고용 현안과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바이오 부스트업 혁신 쇼케이스' 미국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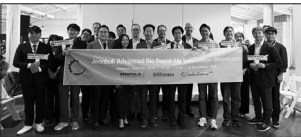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첨단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혔다.

전북특구본부는 지난 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Jeonbuk Advanced Bio Boost-Up Innovation Showcas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 제약 산업 박람회인 'BIO USA 2026(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기명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BIONE 고용혁신 프로젝트 △바탕이음 프로젝트 △관광 · 바이오산업 기초이음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이번 쇼케이스는 글로벌 라이프사이언스 투자 파트너링 행사인 'RESI San Diego 2026'과 협력해 전북특구 전용 세션으로 운영됐다.

행사는 미국 생명과학 분야 투자 기관 심사역 7명이 참석해 참가 기업



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과 투자 상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투자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특구 소재 첨단 바이오 기업 6개사와 서울 흥릉강소특구 기업 1개사가 함께 참여해 특구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글로벌 진출 모델을 선보였다. 참가 기업은 바스젠바이오, 셀레브레인,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유스바이오글로벌, 에투디오바이오코리아, 바이엘티와 흥릉강소특구의 큐제네틱스 등이다.

전북특구본부는 미국 동부 지역 주요 바이오 혁신기관과의 협력 확대에도 나섰으며, 전북특구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매출 성과도 나왔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